

한국마케팅학회
마케팅학연구 제3집(1999)

패러다임전환기의 지역발전전략

박상철*

〈요약〉

국내의 지역간 격차에 주목하는 과거의 지역발전전략은 더 이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 컨셉트는 무엇인가? 어떤 전략대안이 개발될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가 제기하는 기본적 질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의 내적 지식만이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다. 세계적 네트워크시스템 하에서 한 지역의 의미는 집합체적 학습과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차별화에 의한 동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지역발전 전략 컨셉트의 변화는 새로운 전략대안의 개발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산업집락(RC)의 개발과 육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다이아몬드모형」을 개발하여 각 지역의 RC개발전략 수립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은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컨셉트의 확립과 그에 따른 전략대안의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를 대내적인 지역간 소득수준 차이를 해소하거나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축소하는데 두었다. 그 주요 수단은 제조업 투자유치와 산업재배치였다. 그러나 개방네트워크사회의 등장으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관형이 도시나 지역의 입지차별화와 전문화에 의해 주도되면서 국내의 지역간 격차나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에 착안하는 기존의 개발전략은 더 이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각 도시나 지역이 세계적 공간 시스템의 재편에 대응하여 세계수준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독자적 전략대안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도시나 지역이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려고 경쟁하게 된다면 일부 선진국들의 예에서 보듯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개발 전략컨셉트가 변해야 한다. 즉, 세계도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면서 각 도시와 지역은 스스로가 동태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내고 차별화를 기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지역특화산업집락(regional clusters:이하 RC로 약함)의 개발을 핵심적 지역발전 전략대안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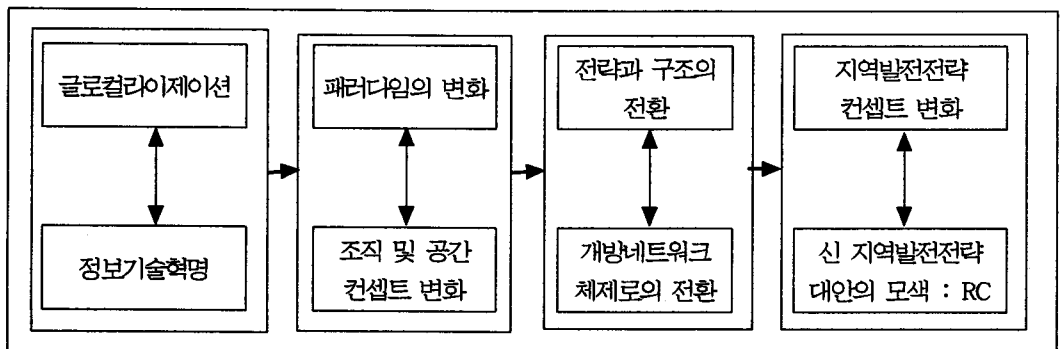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왜 이러한 지역발전컨셉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그것이 조직과 공간컨셉트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발전전략 대안의 발굴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RC개발 전략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을 발견한 뒤 RC개발 전략수립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조직 및 공간컨셉트는 경제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재정투·용자에 의존하는 지역발전전략은 과거와 같은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대안의 발굴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본 연구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분석의 기본적 틀과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기본전제는 환경의 변화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든 사회시스템의 전략과 구조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컨셉트 하에서 각 지역사회는 독자적인 전략대안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논리를 도시해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체계



위에서 보듯이 환경의 변화는 정보기술혁명과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동시적 진행에 의해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사고방식과 인식의 전환이라는 의미의 패러다임전환이 초래되고 그것이 기존의 조직 및 공간컨셉트가 질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과 조직 및 공간컨셉트의 전환은 상호작용 하에 모든 사회시스템의 전략과 구조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방네트워크 체제로의 전환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개방네트워크사회의 등장은 전세계적인 공간시스템의 재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전략 컨셉트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전략컨셉트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전략대안의 발굴과 실행방안의 모색이 필요해지게 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과제와 연구목적, 그리고 분석의 기본적 틀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조직과 공간컨셉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지역발전 전략컨셉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전략컨셉트의 변화와 개방네트워크사회의 지역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제4장에서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대안으로서 지역특화산업집락의 개발전략을 입체다이아몬드모형 하에서 논구한다.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II. 패러다임의 전환

Kuhn(1962)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저서에서 패러다임을 “특히 과학에 있어서 세계의 본질(the nature of world)에 관한 근본적인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패러다임이 없으면 과학이 아니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과학혁명을 초래하게 된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전제는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무너졌고, 뉴턴의 절대성 법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 수정이 가해졌다. 그리고 프리고진, 하이젠베르크 등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엔트로피 또는 소멸의 과정을 밟게 된다는 뉴턴의 기본전제는 이 우주가 소멸이 아니라 계속적인 생성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패러다임은 실험과 관찰을 통한 객관적 지식의 체계 위에서 성립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모든 진실은 개인의 영역 바깥에 존재했고, 외부의 객관적 지식에 의존해서 진실을 판단했다. 그러나 극소 양자역학의 세계, 그리고 광속의 세계에서는 관찰자의 위치가 관찰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가 보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을 보게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Gilder의 「마이크로코즘(Microcosm): 경제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양자역학 혁명」이라는 저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16세기초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듯이 금세기 초 양자물리학에 의해 인간의 감각이 현실검증의 중심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한다(Ray 1993). 대신에 인간의 내적경험이나 의식(consciousness)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Sperry는 “생물계의 운명은 인간의 가치 우선순위(value priorities)에 달려 있으며, 그 우선순위는 인간의 삶과 그 의미에 대한 기본가정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당연히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져온다. 새로운 세계관은 모든 구성요소간의 연결성(connections)과 부분으로 분해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전체성

(wholeness)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시스템적 사고방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세계관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과 진화를 중심개념으로 성립하게 된다. 모든 시스템은 엔트로피의 소멸과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constant creation)의 과정에 있다는 패러다임 하에서는 진화를 중심개념으로 하는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확정성의 세계를 인정하는 패러다임에서는 과거의 분석적 지식보다도 직관적 지식의 중요성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과 진화에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개인의 창조성과 내적 지식의 자유로운 발현이 관건이 된다. 그래서 "진화란 피드백 구조를 가진 카오스(chaos)"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다 (Gleik 1987). 개인은 확실히 임의적이며, 확산적(dissipative)이다. 그것이 복잡계(complex system)를 창출하고 카오스를 유도하지만 거기에는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

패러다임이 사고방식이나 현실을 이해하는 도식(scheme)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전환은 다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Tapscott 와 Caston(1993)은 네 가지의 패러다임 전환(four paradigm shifts)을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경제와 정치질서의 변화로 전후 냉전체제의 종식과 다극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개방적이면서 가변적인 체제의 대두, 두 번째는 국가경제와 시장의 성격변화로 경쟁장벽의 제거와 새로운 경쟁규칙의 등장, 세 번째는 조직성격의 변화로 정보에 기초한 개방 네트워크형 조직구조의 대두, 네 번째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개방 네트워크 지향형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의 혁명적 변화가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초래하면서 양자의 상호작용하에 총체적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본질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1. 정보기술 혁명과 글로컬라이제이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란 현대사회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고,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해 현실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또는 그러한 변화과정을 거쳐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현실을 기술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개념은 합의된 내용을 갖기 어려우며,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사회상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정보사회를 정의한다. 어쨌건 정보사회란 컴퓨터, 통신기술이 통합되어 정보처리와 저장, 전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공유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동시에 정보와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등장하여 인간의 모든 활동영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는 정보기술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기술의 응용차원에서의 변화에 의한 정보혁명에 기초해 있다.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응용(application)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은 Nolan(1992)에 따르면 자료처리기(data processing era), 마이크로기(micro era), 네트워크기(network era)의 세 단계를 밟아 진행되어 왔다(Bradley 1993).

자료처리기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있었으며 일괄처리방식의 대형컴퓨터(main frame computer)를 이용하여 하위계층의 사무작업과 단순 수작업의 자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70년대 중반이후 중간관리층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정보기술의 적용은 단순작업의 자동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모형하에서 마이크로 컴퓨터를 통한 작업집단내 부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했으며 중간관리층의 축소와 통합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시작되는 네트워크기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융합에 의해 LAN, WAN, Internet으로 발전하면서 전세계를 하나의 전자망(electronic networks)으로 연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해 가상공간(cyber space)이 창출되고, EDI, CALS, EC등 새로운 경제활동 메카니즘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자체의 성격변화와 기술응용차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촉진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또다시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표 1> 정보기술패러다임의 변화

	제1기(1960~1980)	제2기(1980~)
네트워크화 정보처리 시스템	재래형 반도체 메인프레임 중시	마이크로프로세서 네트워크 기반
개방시스템화 소프트웨어 표준 정보유형 생산자-고객관계	호환성 없음 자료, 문자, 음성, 영상분리 종속적	호환성 통합 독립적
소프트웨어산업의 혁명 개발 이용자 보조수단 응용	개인재능의존 문자와 숫자 의존 분리	집단적 생산 도형의존 통합

자료: Tapscott and Caston (1993), *Paradigm Shift*, p. 19.

Andrew(1991)는 각 사회 시스템의 절대적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개방적 동태균형을 모색하는 세계시스템이 형성되어 가는 동시에 각 사회시스템의 강한 정체성을 구심력으로 한 지방화(localization)가 진전되고 있는 현상을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설명하려고 했다(Swygendou 1992). 이처럼 범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범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의 개념이 희석되어 가고 있으며, 이전에는 분명했던 국제관계의 통로와 국제교류과정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국가가 국제관계의 핵심적 주체였던 시대에서 국민국가의 내부분열과 불균등성의 심화로 지방 또는 하위의 공간단위가 세계시스템내에서 보다 중요한 행동주체로 등장하게 된다(Ohmae 1996). 이렇게 되면 지방이나 거점도시가 불가피하게 분리독립된 도시국가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도시가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Sassen 1991; UN 1996).

둘째, 범세계화로 인해 경쟁의 성격과 국가 또는 특정 지방의 경쟁우위요인이 달라지게 된다. 경제활동의 공간적 확장과 기능적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 비교우위 개념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동태적 경쟁우위의 전략적 창출이 관건이 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분업과 세

계도시가 부상하게 되고, 선후진국간의 경제·사회적 갭뿐만 아니라 각 도시간의 불균등성이 확대되어갈 전망이다. 1980년대 이후 국내도시간의 불균등성은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의해 그 격차가 축소 되어가는 경향성을 보여주었으나 앞으로 세계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 흡수효과(crowding-out effect) 등에 의해 그 격차가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계화과정에서 지방경제가 자립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방공동체간의 생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지방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가속적으로 악화되어 갈 것이다.

셋째, glocalization의 심화과정에서 특정 도시의 경쟁력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시스템의 경쟁력보다는 도시 전반의 성공적 시스템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져 갈 것이다(Lee and Kim 1995). 법세계화, 경제의 서비스화 그리고 제조업의 소프트화로 인해 기업이 특정 도시에 입지하고 있더라도 조직의 통제와 관리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부가가치의 성장산업은 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들 산업에 종사는 전문가, 과학자, 숙련공 등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생활환경이나 공간의 창출이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결정변수로 등장하게 된다(Dunford and Kafkalas 1992).

2. 조직 컨셉트의 변화

19세기의 기업과 행정조직은 전통적 또는 가전적(patrimonial) 권한관계 하에서 수직적 분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화된 형태의 조직구조를 취했다(Perrow 1986). 가족과 교회 등 일차적 사회제도의 약화, 그리고 전기통신 등의 기술혁신은 전문화와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춘 관료제 조직구조의 등장을 촉진하면서 20세기 초 고전적 조직관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에 기초한 이론들이 과학적 관리학과(Taylor), 관리과정학과(Fayol), 관료제론(Weber)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고전적 관점에서 조직은 단일 목적의 기계(machine)로 간주된다. 마치 시계처럼 환경의 영향은 배제되고 그 행동은 조직내부구조나 자연의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된다(Ackoff, 1981). Scott(1987)는 이러한 관점을 폐쇄-합리적 시스템(closed rationality system) 전제라고 했으며, Thompson(1967)은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 전제라고 했다.

고전적 관점이 20세기 전반을 풍미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1930년대에는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비공식조직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강조한 인간관계학과(Mayo 등)가 그리고 1940년대에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학과(Simon 등)가, 1950년대에는 Argyris와 McGregor등의 인적자원학파가, 1960년대에는 Woodward의 연구를 효시로 한 상황적합이론 등이 제기되면서 고전적 관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고 시도했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조직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생존을 확보하려는 유기체에 비유하며, 환경의 변화를 예측해서 주어진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의 합리성은 개인에 대한 합리성이 아니라 조직적 합리성(organizational rationality)이다. 합리성의 확보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제 메카니즘의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설계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포스트모던 조직관을 1970년대 말에 Weick(1979) 등에 의해 기초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직관은 실질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가설에 기초해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이 현실을 재대로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이 조직내에서의 자기들의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갖게되는가

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Clegg 1990; Morgan 1986). 실질적 합리성 개념트는 조직을 두뇌에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Garud and Kotha, 1994). 두뇌는 다양한 외부자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기조직화와 학습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던 조직관은 조직의 경계(boundary)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조직의 폐쇄성과 개방성도 중요시하지 않는다. 대신에 각 조직은 환경에 대해 독특한 방식으로 개방되어 연계됨으로써 생존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환경과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특정의 환경내에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때는 폐쇄시스템이 관념적으로 등장하며, 특정의 환경 외부에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때는 당연히 개방시스템이 상징되는 것이다.

<표 2> 조직개념트의 변화

	합리성개념	환경에 대한 접근	조직관	비유(metaphor)
전통적 관점	기술적 합리성	폐쇄시스템 전제	합리적 시스템	기계(machine)
현대적 관점	조직적 합리성	개방시스템 전제	합리적/자연적 시스템	유기체(organism)
포스트모던 관점	실질적 합리성	폐쇄/개방시스템 전제	자연적 시스템	두뇌(brains)

자료: Volberda(1998), *Building the Flexible Firm*, p. 26.

3. 공간 개념트의 변화

정보기술혁명과 개방네트워크 시스템 조직의 등장은 기존의 공간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첫 번째 동인은 '볼 수 있고 실재하는' 현실 또는 물리적 공간(real or physical space)외에 '볼 수는 있지만 실재하지 않는' 가상공간(virtual or cyber space)의 등장이다. 가상공간은 개방-공유(open distributed) 인터넷에 의해 창출되며, 물리적 공간을 기초로 성립하게 된다. 물론 완전히 상상에 의해 창출되는 화성식민지와 같이 현실공간과는 무관한 가상공간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인간의 상상력에 의존해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세계와 무관하지 않다. 물리적 공간과의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은 물리적 제약조건의 부재로 현실세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동시에 국내외의 여러 기업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상공간의 등장으로 전통적 경제활동과정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Choi et al 1998).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실공간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경제활동이 상응성(correspondence) 확보를 위해 제품과 과정,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그리고 시장공간의 수렴을 요청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두 공간의 수렴이란 상호 동질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품의 수렴이란 유형제품과 디지털제품과의 결합에 의해 동질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고, 과정의 수렴이란 부가가치의 연쇄가 연속적이면서 동시화 되는 통합화 과정을 의미한다. 인프라의 수렴이란 여러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통합을 말하며, 시장공간의 수렴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거래장벽이 제거되어 하나의 시장화 또는 글로벌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공간에

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해관계와 선호도에 따른 가상집단(cyber groups), 그리고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ies)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시장의 지리적 공간개념이 퇴색하고 다양한 선호차이를 보여주는 소비자집단에 의해서만 시장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현실변화를 전제로 하면서도 입지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진행되면서 공간 컨셉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Krugman(1993)은 경제학자들이 입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화(localization)가 진전되는 세 가지 원인을 Marshall의 이론을 빌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일한 장소에 여러 기업들이 집중됨으로써 기능인력의 풀(pool)이 형성되고 이에 의해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공히 다양한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 기능인력 이외의 비교역제 투입요소(non-tradable inputs)에 대한 시장의 지방화가 잠재적인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하고 사회간접자본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다양성과 원가절감을 가능하게 해 준다. 셋째, 정보유통의 지방화가 기술의 전파(spillovers)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Krugman(1993)은 세 번째의 지식기반에 근거한 요인이 Silicon Valley나 보스턴 Route128지대의 특화산업 집락형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상공간의 등장 이 지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경감시켜 가는데 반해 지식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집단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면서 오히려 입지공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Spender 1998). 집단적 지식이란 문화 등 체험에 의해 학습되는 암묵적 지식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 개발되고 보유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집단적 지식의 지리적 분포는 인적교류(personal interaction)에 결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간 컨셉트의 변화는 지방이나 지역의 의미를 세계적 공간시스템 차원에서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도시시스템 상에서 각 도시의 개별 기능(node)과 도시간의 결합관계(link)를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국가간의 관계나 국제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다임 전환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그것은 과거와 같이 지역간 격차나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에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수준과의 격차를 중심개념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Ⅲ. 지역발전 전략컨셉트의 변화

지역발전에 대한 과거의 접근방법은 요소부존(factor endowments)의 상대적 비율에 기인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따른 전문화를 중심개념으로 하고 있었다. 즉, 국가나 지역의 발전은 각각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존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해 왔다. 그리고 요소이동상의 국내와 국외간의 엄격한 구분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의 핵심은 어떤 산업을 어느 곳에 입지시키느냐가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창출된 자산」(created assets)에 기인하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에 따른 동태적 차별화(dynamic differentiation)에 의해 지역발전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Scott 1998). Toynbee(1946)와 Porter(1990)는 공히 자연적 혜택이나 순경(順境)이 오히려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소부존상의 불리함이나 경쟁압력에 의한 자극이 오히려 창조적 대응을 유발하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의 요

인이 실패의 요인으로 바뀌듯이 강점요인이 약점요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

창출자산은 개인이나 조직에 소유되며 공간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적합한 전략을 개발해 낼 수 있다면 지역발전의 약점요인이 강점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될수록 천연자원보다는 창출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경쟁우위 결정변수로서 창출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발전전략 컨셉트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하에서 개방 네트워크 조직사회와 지방화에 대해 고찰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컨셉트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개방네트워크 시스템하의 도시와 지역

20세기 들어 가장 현저한 변화중의 하나는 도시화의 급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가 시작된 1900년의 세계인구가 17억명이었을 때 도시인구는 2억 2천만명으로 도시인구비중은 13%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현재는 세계인구 57억명의 45%인 26억명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 기간에 세계 총인구는 연평균 1.3%씩 증가한데 반해 세계도시인구는 연평균 2.6%씩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전망이다. 이에 기초하여 21세기는 「도시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한 지역이 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명제나 '도시시대가 도래한다'는 예측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국가간 경쟁을 지역간 경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동시에 사회적 분업의 기회를 대폭 확장하여 지역적 전문화를 고도화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지방화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입지의 차별화와 전문화 그리고 지방간 교류에 의해 세계경제의 광범위한 공간적 판형(configurations)이 결정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Scott 1998).

도시가 후배지(hinterland)와의 교류가 아니라 글로벌네트워크의 일부로서 기능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Gillespie 와 Hepworth(1987)는 '개별도시와 지방의 미래는 이러한 네트워크 경제의 공간적 변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그리고 Batten(1995)은 과거의 세계도시시스템을 거점도시 또는 중심지시스템으로, 새로운 세계도시시스템을 네트워크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는 중심성, 규모의존성, 중앙과 변방, 수직적 통합, 수송비, 완전경쟁 등을 중요시하는 데 반해 후자는 결절성(nodality), 규모중립, 유연성 및 보완성, 수평적 통합, 정보코스트, 가격차별을 수반하는 불완전경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방네트워크시스템하의 도시와 지역은 경제적 공간(economic space)으로서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거래적 교환이 일어나는 경제적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학습효과를 증폭시키는 공간으로서 도시와 지역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Patchell 1993; Russo 1985). 이것은 특정 지역의 입지 특유 우위요소가 과거와 같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물적 생산요소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학습과 지식, 그리고 독특한 문화(Marshall의 산업분위기 'industrial atmosphere' 개념과 유사) 등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지역간의 차별적 우위요소는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이 집적되면서 산업간 교환비용의 감소가 가능해지고 산업시스템을 통한 자본과 정보의 순환이 가속화되며, 독특한 산업문화의 창출을 통한 외부경제효과가 커지게 된다. 그리고 지역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제고하여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유형-무형의 사회

간접자본도 확충되면서 지역적 전문화가 고도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동태적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의 집적효과가 강화되려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Aydalot(1988)는 지역적 혁신의 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산업지역의 재구조화와 현대화를 통하여 재활성화하는 것이다. 스위스 주라지역 시계산업이 1975년에서 1985년까지 붕괴되었다가 1990년대에 스와치로 재기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두 번째 유형은 대기업의 유입에 의해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도입되고 인프라가 정비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닛산자동차가 영국 Tyne과 Wear지역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전체가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대학과 연구소의 지식이전에 의해 지역전반의 혁신이 지속되는 경우로 캠브리지대학 주변의 첨단산업지대, 그리고 MIT대학을 중심으로 한 보스턴 지역, 스텐포드대학과 실리콘밸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개방네트워크 시스템 하에서도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각 지역의 독특한 산업문화의 형성과 그에 기초한 혁신이 지속되는 경제공간이 바로 지역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분야의 지식밀도가 지역이나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된다(Blakely 1992).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인적자원)이 경쟁력의 관건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학습될 수 있는 명시적 지식은 지역의 중요성을 경감시켜 갈 것이며, 상호교류에 의해 학습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암묵적이고 집단적인 지식은 지역의 중요성을 증대시켜갈 것이다(Spender 1998).

2. 지역발전 전략의 새로운 컨셉트

새로운 패러다임은 프리고진의 불확정성 원리 등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기업조직을 개방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시스템 내부의 효율성보다 시스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적 진화과정을 중시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의 내적 지식(inner knowledge)만이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진화론적 적응은 이 내적 지식과 직관을 활용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또는 기업마다 그 처한 현실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상황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시대상황에 따라서도 패러다임은 달라질 것이고 개인과 기업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Brutoco 1993).

Porter(1996)는 "전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경쟁자와는 '상이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상이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자답하고,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은 이런 의미에서 전략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사적 품질관리, 카이젠(改善) 등 선구자적 경영기법을 창안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고 모조하면서 파괴적 경쟁이라는 스스로의 덫에 걸려들게 되었으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합의 지향적이고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화적 장벽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모방과 그에 따른 동질화는 아무리 탁월한 전략이라 하더라도 영합게임(zero-sum) 경쟁을 초래하고 모두의 경쟁력이 오히려 모두의 경쟁열위 요인으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략 컨셉트의 정립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역과 기업의 유사성문제를 차치해 놓고 지역발전전략의 요체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각 지역이나 도시가 '상이한' 경제활동에 전문화하거나 유사한 경제활동을 '상이한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지는 이른바 패(敗)/패게임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도시나 지역이 특정산업에 의해 고도성장을 지속할 때 다른 도시나 지역도 그 특정산업을 유치하여 생산도시화를 피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물귀신'전략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의 지역발전전략은 전략수립의 목표부터 지역간 특화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성장이 유일하고도 지고한 전략목표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역의 발전에서 산업과 경제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것 이외의 문화나 사회, 정치의 발전도 지역발전전략의 일차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에 입각해서 발전전략 '다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전략이론은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접근방법 하에 개발되어 오고 있다.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원거점이론과 진화론적 접근방법이다. 이들은 경영전략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전략 차원에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Kanter(1995)의 핵심역량에 따른 지역발전전략은 자원거점전략이론을 지역발전에 응용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Enright(1998) 역시 자원준거전략론을 지역특화산업집락(regional cluster) 분석에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다.

자원준거전략론은 Marsall(1925)과 Penrose(1959) 등의 선구자적 연구에 기초해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이들의 이론이 재조명되면서 1980년대 이후 다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 계기를 제공한 것이 Wernerfelt(1984) Prahalad 와 Hamel(1990)이다. 소위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이론이 제기되면서 일본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데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골자는 지속가능한 경쟁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이 쉽게 입수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성질의 기업특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역량은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이고 집단적이며, 조직차원에서 누적적 과정을 거쳐 창출된 지식으로서 경쟁우위의 원천이다(Wernerfelt 1984)

따라서 지적자원(knowledge-based resources)의 성격에 대한 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지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연히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Penrose(1959)는 자원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하고 인적자원이 다른 물적자원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Itami(1987) 역시 지식을 포함한 무형자원은 사람에 체화되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진화론적 전략이론은 Nelson 과 Winter(1982)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Veblen(1904)이 주장하듯이 진화자체가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서는 균형개념이 배제되며, 누적적 인과작용(cumulative causation)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과정은 유전과 돌연변이, 도태(selection) 등 생물의 진화 메카니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 메카니즘은 유전과 조직학습(또는 조직문화), 자연도태와 시장도태(market selection) 등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다. 생물학적인 종의 진화에서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듯이 조직의 진화에서도 그러한 능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Nelson 과 Winter(1982)는 그것을 지적자산(knowledge base)이라는 의미의 루틴(routine)이라고 정의한다. 루틴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기존의 루틴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집중적 탐색과 새로운 루

턴을 확보하려는 확장적 탐색(extensive search)간의 조화가 조직의 적응능력과 진화를 결정하게 된다. 이 탐색과정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필요로 하며, 진화는 결국 학습능력에 의해 좌우된다(Cohen and Levienthal 1990).

이상의 두 전략이론은 많은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식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인적자원과 조직적 학습을 강조하는 면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시스템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과 생존의 확보를 중시하는 면에서도 차이가 없다. 다만 자원준거 전략론이 단계적 균형상태를 전제로 이론을 전개하는 정태모형에 가까운 반면에 진화론적 전략론은 동태적 진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과정 지향적 일반이론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두 이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자원준거이론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 창출 경영자원'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환경변화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과 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진화론적 전략론은 기업간의 서로 다른 진화패턴을 규명하는 노력을 통해서 조직이 모방 불가능한 경영자원을 축적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장세진 1998).

IV. 지역발전 전략 대안

이상에서 고찰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역발전전략 개념의 변화 내용을 기초로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안 개발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계가 불확정적인 또는 무경계(boundaryless)의 개방 네트워크사회의 등장과 함께 도시나 지역이 입지의 차별화와 전문화 그리고 도시간·지역간 교류를 통해 세계경제의 광범위한 판형을 결정해 가는 추세에 비추어 국내의 지역간 격차나 중앙과 지방의 격차에 착안하는 기존의 개발전략은 구시대적인 것이며, 세계적 공간시스템의 재편에 대응하여 세계수준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키고 경쟁자와는 상이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상이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차별화'가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요체가 된다면 각 도시나 지역은 절대적 경쟁우위보다는 상대적 경쟁우위(comparative competitive advantage)에 바탕을 둔 동태적 전문화를 추구하는 전략대안을 개발해야 한다(Dunning 1998). 셋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전통적인 직·간접적 재정투·융자에 기초한 지역발전전략과는 상이한 접근방법이 요청되고 있다.

이상의 세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발전전략대안은 지역별 특화산업집락의 개발로 집약될 수 있다. Enright(1998)에 따르면 RC를 지방과 국가수준의 개발정책의 중심개념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로 뉴질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미국의 각 주,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등이 있다. 이하에서 RC와 지역발전의 관계, RC개발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RC와 지역발전

어떻게 한 문명이나 국가, 지역과 도시, 그리고 기업이 장기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물론 한 문명과 하나의

기업은 그 해답이 근본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형의 조직(시스템)이건 끊임없는 도전과 대응(challenge-response)의 과정을 통해서(Toynbee 1946), 또는 창조적 파괴(Schumpeter 1942)를 통해서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을 때만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Fujita and Ishii 1998).

모든 시스템환경은 내·외부요인에 의해 변화를 계속하며 각 시스템이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내부와 외부에 공히 환경과의 정(+)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 고리가 창출되어야 한다(Arthur 1994). 새로운 공간컨셉트 하에서 도시나 지역은 독특한 '산업분위기'를 창출하면서 비공식적이지만 활발한 혁신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의 혁신과 발전과정에서 입지공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Schumpeter (1934)에 따르면 혁신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① 신제품 또는 새로운 품질의 제품 도입, ②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③새로운 시장의 개척, ④원재료나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장악, ⑤새로운 조직의 설립. 이러한 혁신의 다섯가지 유형 중에서 ③과 ④는 입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나머지 세 유형도 경제적 공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모든 혁신은 공간적 차원과의 연관성높여가고 있다.

둘째, 입지는 기업의 환경을 규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Poter (1990)가 강조하고 있듯이 연관 산업과 경쟁관계 등 입지조건은 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창출에 있어 관건이 된다.

셋째, 외부경제효과와 집적효과(agglomeration economies) 등 내재적 요인에 기인하여 도시나 지역은 그 자체의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기업과 지역의 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ujita and Ishii 1998).

산업집락(industrial cluster)은 구매자-공급자 관계, 공통의 기술과 유통경로, 인력자원 풀(pool) 등에 의해 연계되어 있는 산업집단을 말한다(Poter 1990). RC는 이러한 산업집락이 특정 지역을 입지공간으로 하여 연관 산업을 포함해서 근접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RC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Porter를 위시한 국가경쟁력 연구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경쟁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국가가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나 일부 특정산업은 특정지역에 입지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예컨대 스위스의 시계와 약품, 이태리의 섬유류와 석재, 미국의 상업용 항공기와 영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이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RC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특정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전통적인 지역개발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 유치 또는 신규설립 위주의 전통적인 지역개발 모델의 유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각 유치지역이 제시하는 재무적 유인책에 근거한 입지결정이 기대한 만큼 실익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난 반면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위주의 성공적인 지역산업집락들이 출현함으로써 RC가 대기업위주의 지역경제 개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지만 크게 보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피라미드형태의 산업지대로 소수의 대기업이 여러 협력업체들을 거느리는 경우이며, 자동차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낮은 가구, 의류, 보석,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보듯이 여러

중소업체들이 수평적 관계 하에서 특정 지역에 군집해 있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나 집적효과가 그 기저에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산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공간적 집적패턴을 보여왔다. 초기의 소규모공장제 생산방식은 지역발전 패턴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지만 주로 부존자원에 의해 마샬리안(Marshallian) 산업지대가 형성되었다. 랭카셔지방의 면방직 산업, 요크셔지방의 모직산업, 셰필드지방의 철물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의 대량생산 시스템의 등장은 성장주도산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분업에 기초한 산업지대의 형성과 대도시화를 촉진시켰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산업, 피츠버그의 철강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산업중심지와 변방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특징을 이루었다. 세 번째의 유연생산시스템의 등장은 첨단기술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기존 산업의 공간적 재배치를 촉진하면서 새로운 산업공간을 도처에 창출해 내기에 이르렀다. 이 산업시스템은 제품의 다양성과 대량생산방식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의 공간적 확산과 집적현상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Scott 1998). 그리고 산업의 성격상 부존자원보다는 인적자원에 기초한 창출된 자원이 입지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개방네트워크시스템의 등장은 그 자체가 국제분업의 고도화 및 지역적 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지방화(localization)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RC 형성이 더욱 촉진될 것이며, RC가 지역발전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해 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환언하면, RC가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2. RC 개발전략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이 군집을 형성하여 입지하는 현상을 "지역특화산업집락"이라고 볼 수 있다. Arthur(1986)에 따르면 특정지역의 산업집적(industrial agglomeration)은 대체로 "우연"의 산물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는 Hewlett, Varian, Shockley 등이 스탠포드대학교에 기업을 설립하면서 천여 개의 기업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의 산업배치정책이나 국토개발전략에 따라 특정지역의 산업집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처럼 국토개발차원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의해 지역특화산업집락이 인위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창원의 기계공업, 여천의 석유화학, 구미의 전자산업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인 성격과 인위적인 성격을 통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특화산업집락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나라마다 상이하고, 특정국가내에서도 각 RC마다 상이할 수 있어 일반화가 어렵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RC의 경쟁력이 특정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 활용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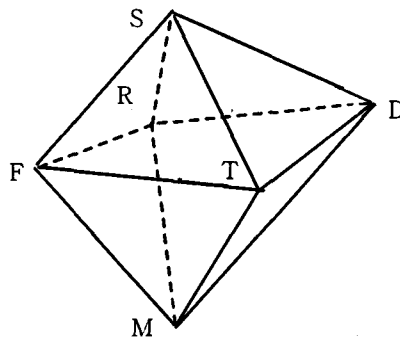
Enright(1994)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지역특화산업집락(RC)의 개발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며, RC개발전략이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네 단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어떤 국가 내의 성공적인 기존의 RC 또는 잠재력이 있는 RC를 규명해야 한다. 잠재력이 있는 RC란 특정지역이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지역의 노동력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또는 국내의 고급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둘째, 이렇게 규명된 RC의 핵심기술 또는 핵심역량을 개발하는데 집중 투자하여 집락의 확장과 심화를 도모해야 하며, RC내의 자체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해외기술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집락 내의 “허점”을 발견해 내어야 한다. 부품, 소재산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이 미비한 경우 등에는 이 “허점”의 보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역내 산업의 육성이나 역외 산업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넷째,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동일업종 RC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RC내의 기업간 경쟁관계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협력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도 있다.

특정지역의 RC가 갖는 경쟁력 결정변수에 대한 분석 틀은 Porter(1990), 조동성(1997)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조동성 교수의 「9요소 모델」은 포터 교수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확장하고 한국 등 개도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모형의 현실 설명력과 부합성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RC의 발전전략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형의 개발이 필요했으며, 조동성(1997)은 「ser-M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업과 RC, 지역과 국가는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게 되는데 이때 각 시스템의 주체(s: Subject)는 환경(e: Environment)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변화에 적합하거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r: Resources)을 활용하거나 창출하게 된다. 환경변화에 대응해 주체가 자원을 활용하거나 창출하는 과정에서 메카니즘(M: Mechanism)이 형성된다. 여기에는 학습, 조정, 선택 메카니즘이 나타나며, 각각의 우열에 따라 장기 경쟁력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안으로서 「RC 개발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분석 틀을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변형시켜 <그림 2>와 같이 제시한다.

<그림 2> RC분석을 위한 입체 다이아몬드 모형



- | | |
|----------|-------------|
| S : 전략차원 | M : 메카니즘 차원 |
| T : 기술조건 | F : 요소조건 |
| D : 수요조건 | R : 관련산업 조건 |

〈그림 2〉에서 보듯이 이 「입체 다이아몬드」 모형은 포터 모형에서 전략과 구조변수를 독립시키는 대신에 경쟁우위의 핵심요소로서 기술변수를 포함시켜 요소조건과 수요조건, 관련산업 조건과 함께 네 변수가 RC경쟁력에 있어 기초적 결정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네 가지 변수를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활용하는 전략차원, 그리고 RC의 내부상호작용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카니즘 차원을 통합한 것이다.

1) 전략차원

개방네트워크시스템 사회에서 각 지역 발전전략의 핵심은 차별화에 있다. 이 때문에 RC개발이 지역발전 전략대안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은 국내 타지역과의 격차나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보다는 세계수준과의 경쟁력 차이를 고려해서 지역발전전략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전략목표란 지역발전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관 형성이 가능해지고 독특한 산업문화의 창출을 통해 사회적 통합 및 관리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응력은 공동의 목표를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을 때 높아지게 된다(김원배 등 1997). 각 지역의 RC개발의 목표는 단순히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정향진화가 아닌 동태적 진화를 계속하는 내발적 성장역량의 강화에 있다.

그러므로 타지역과는 상이한 RC의 개발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특정 산업집락은 선점효과에 기인하여 후발주자의 신규진입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방이나 모조보다는 틈새개발에 의한 독창적 RC의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한 RC의 개발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박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무등산 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수박과 자연적으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몇몇 지역은 개발억제를 지역발전 전략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단순한 물적 성장을 유일시하지 않는다면 고차원의 다각적인 전략목표를 각 지역이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전략목표에 따라 적합한 RC를 선점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동태적 경쟁우위의 창출

개방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기술조건,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조건등이 급속하게 변화하게 되며,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 조건에서의 동태적 경쟁우위 창출이 불가피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력의 제고와 신속한 신제품 개발능력 개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능력과 혁신역량의 배양 등이다. 정보화사회에서 하나의 단위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의미가 가중되는 것은 특정산업의 지리적 집적에 의해 혁신의 가속화가 가능해 진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특정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는 동인 역시 집적에 따른 학습효과와 기술혁신의 신속한 전파에 있다.

그러므로 물적,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 RC개발과 관련된 고급 인적자원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고, 유입된 조직과 자원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흡인력과 응집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프라 정비의 기본방향은 정보화 기반시설의 확충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제기될 수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지리적 격리나 거리마찰의

효과를 감소시켜 시간과 공간의 수렴(time-space convergence)현상을 일으키며 공간적 분산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측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역량의 편차에 따라서 정보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격차를 수반하게 되며, 통신결절성(nodality)에 의한 대도시로의 집중강화와 특정지역의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김광웅 등 1997). 특정지역의 정보화상의 소외는 특정지역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고립시키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정보통신기반정비 및 정보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전략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지역정보센터의 건립과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동태적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고유한 지역이미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특정 RC의 개발과 육성은 독특한 지역이미지 창출과 연결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물리적 방향성에 따른 동서구분 또는 서울과의 거리에 기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의 구분은 갈등조장적이고 소모적일 뿐이다. 외국의 경우 특정지역이 특정 RC로 인해 유명해지고 그러한 지역 이미지가 당해 RC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특정 RC가 그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코닝과 보르도, 아스펜등이 그러하다. 어쨌든 독특한 지역이미지의 창출은 동태적 경쟁우위 확보에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메카니즘의 효율화

Dunning (1998)에 따르면 어떤 국가가 효율적으로 RC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조건에 기인하게 된다: 첫째, 정부의 거시경제적, 조직적 정책, 둘째, RC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 및 마케팅 전략, 셋째, 산업집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비용은 극소화할 수 있는 RC참여기업들의 능력과 의욕, 넷째, R&D 및 교통과 통신 인프라,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보완적 자산의 질 등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RC가 지리적 상호 인접성이 동태적 집적효과를 가져다 주는 상호의존적 생산활동의 군집 또는 생산자 집합체(collectivities)라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러한 집적의 경제성은 부분적으로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활성화될 수도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시장영역 밖의 정책적 수단 또는 제도적 간접자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공공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RC개발에 있어 정책개입의 여지가 나타나게 되며, 정책 개입에 따라 메카니즘의 효율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토지이용계획, 공해문제의 처리 등 시장실패 영역의 경우 지역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리고 외부경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개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그러했다. 다만 시장시스템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될 뿐이다. Scott(1998)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서는 공공개입이 시장기능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핵심적 투입요소와 서비스를 공공재로서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자극하는데 결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분에서 필수적인 분야에 과소투자하는 경우와 그 분야가 집적효과를 창출하는데 긴요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 정책개입의 유효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RC와 관련된 연구 개발 투자와 기능훈련, 시장정보의 수집과 광고 및 마케팅 활동 등이다.

둘째, RC참여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을 조장하는데 대한 투자로 지역산업의 컨소시엄 형성, 민관협력사업(제3섹터 방식)의 도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참여기업간 경쟁과 협력의 동시적

조장은 RC의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창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Enright 1990, 1998). 경쟁과 협력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또는 독특한 산업 문화의 창출이 요청되며,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전략적 선택과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사회적 결속력 강화 또는 통합역량의 강화를 위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지역별 상표권의 확립, 생산자 조합의 결성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발굴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역경제협의회 또는 장기전략구상협의회 등을 활성화하는데도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 지역간 조정기구를 설립하는 일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정책개입의 목표는 외부경제성과 집적경제성의 극대화, 지역경제시스템 내부의 경로의존적 발전의 역동성 확보, 그리고 이 둘의 주기적 재구조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Saxenian(1994)의 주장대로 RC의 성공은 단순한 공간적 인접성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정책에 의해 형성되는 메카니즘의 효율성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과거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로 채택했던 대내적인 지역간 소득격차의 해소는 더 이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특화산업집락의 개발을 핵심적인 지역발전전략대안으로 간주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내고 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컨셉트는 무엇인가? RC와 지역발전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실행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분석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컨셉트가 요청되는 기저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보기술혁명과 글로컬라이제이션에 의해 유도되고 있으며, 조직컨셉트와 공간컨셉트를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에 의해 나타나는 개방네트워크사회는 모든 조직과 지역이 전략과 구조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지역발전 전략의 신컨셉트는 차별화(differentiation)를 중심개념으로 한다. 상이한 전략목표가 바람직하며, 동일한 전략 목표도 상이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의 내적지식만이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든지 차별화가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전략컨셉트는 자원준거전략이론과 진화론적 전략이론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두 이론 모두 경제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은 학습과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역동적 메카니즘을 내재하고 있을 때 비로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러한 메카니즘을 최적 활용할 수 있는 전략대안이 바로 RC의 개발이다. 효과적인 RC개발을 위해 필요한 분석도구로서 다양한 모델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포터의 모형을 개조한 「입체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RC개발전략의 수립과 실천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광웅 등(1997), "정보화사회의 비전과 국가정보화 전략체계," (서울:한국공공정책학회)
- 김원배 등(1997), "지방대도시 경쟁력강화방안,"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 장세진(1998), "경영자원론과 기업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전략경영이론의 최근 동향," *전략경영 연구*, 1(1), 49-73.
- 조동성(1997),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의 조화와 균형," 21세기 한국의 국가정책과 체계론적 사고(한국체계과학회 등 공동학술발표회 논문집), 243-279.
- Arthur, W. B.(1986), "Industry Location Patterns and the Importance of History," *CEPR Technical Paper*, No. 84, Stanford University.
- _____ (1994), *Increasing Returns and Path Dependence in the Economy* (Ann Arbor, Mich: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Aydalot, P.(1988), "Technological Trajectories and Regional Innovation in Europe," in P. Aydalot & D. Keebe ed. *High Technology Industry and Innovative Environments* (London: Routledge), 22-47.
- Batten, D. F.(1995),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32(2), 313-27.
- Blakely, E.(1991), "The New Technology City: Infrastructure for the Future Community," in J. Brotchie et al ed. *Cities of the 21st Century*(NY: Halsted Press), 229-236.
- Bradley, S. P. et al(1993), "Global Competition and Technology," in Ibidem et al ed. *Globaliz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on*(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3-32.
- Brutco, R.(1993), "Foreword: Sculpting a New Business Paradigm," in Ray, M. et al ed., *The New Paradigm in Business*(N.Y.: The Putman Publishing Group).
- Chandler, Jr., A. D. et al ed.(1998), *The Dynamic Firm*(N.Y.: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S. et al(1997), *The Economics of Electronic Commerce*(Indianapolis: Macmillan Technical Publishing).
- Clegg, S. R.(1990), *Modern Organizations*(London: Sage Publications)
- Dunford, M. and G. Kafarakas(1992), "The Global-Local Interplay, Corporate Geographies and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in Europe," in Ibidem ed.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London: Behaven Press), 3-38.
- Dunning, J. H.(1998), *Globalization,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Spatial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in Chandler, Jr. A. D. et al ed.(1998), 289-314.
- Enright: M. J. (1990),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ial Organization," ph. D. *Dissert.* Harvard University.
- _____ (1994), "Regional Clusters and Economic Development: A Research Agenda," *Working Paper* 94-842, Harvard Business School.
- _____ (1998), "Regional Clusters and Firm Strategy," in Chandler, Jr. A. D. et al

- ed. (1998), 315-342.
- Fujita M. and R. Ishii(1998), "Global Location Behavior and Organizaional Dynamics of Japanese Electronics Firms and Their Impact on Regional Economics," in Chandler, Jr, A. D. et al ed.(1998), 343-383.
- Gillespie, A. E. and M. E. Hepworth(1987), "Telecommunica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etwork Economy," in Estabrook, M and Lamarche, H. eds., *Telecommunications: A Strategic Perspective on Regional Economic and Business Development*(Ottawa: The Canadian Institute on Research on Regional Development)
- Gleik, J.(1987), *Chaos: Making a New Science*(N.Y.: Viking Press).
- Kanter, R. M.(1995), *World Class*(N.Y.:Free Press).
- Krugman, P. R.(1993), *Geography and Trade*(Cambridge, Mass: MIT Press)
- Kuhn, T. S.(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Lee, G. Y. and Y. W. Kim(1995), "The Globalization of Economy and Spatial Implication s," in Idem ed. *Glob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Anyang: KRIHS)
- Morgan, G.(1986), *Images of Organization* (Calif: Sage Publications)
- Ohmae, K.(1996), *The End of Nation State* (NY: Free Press)
- Patchel, J.(1993), "From Production Systems to Learning Systems: Learning from Japan," *Environment and Planning*, 25, 787-815.
- Peirce, N., C. W. Johnson and J. S. Hall, *Citistates*(Washington D.C.: Seven Locks Press).
- Porter, M. E.(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New York: Free Press).
- Ray, M.(1993), "Introduction: What is the New Paradigm in Business," in Ibidem & A. Rinzler ed., *The New Paradigm in Business*(N.Y.: The Putman Publishing Group).
- Russo, M.(1985), "Technical Change and the Industrial District," *Research Policy*, 14, 329-43.
- Saxenian, A.(1984), *Regional Advantage*(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mpeter, J. A.(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NY: Harper & Brothers)
- _____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London: Transaction)
- Scott, A. J.(1998), "The Geographic Foundations of Industrial Performance," in Chandler, Jr. A. D. et al ed.(1998), 384-401.
- Spender, J. C.(1998), "The Geographics of Strategic Competence: Borrowing from Social and Educational Psychology to Sketch an Activity and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in Chandler, Jr., A.D. et al ed.
- Sassen, S.(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wygendouv, E. A.(1992), "The Mammon Quest: 'Globalization', Interspatial Competition and the Monetary Order," in Dunford, M. & G. Kafkalas ed. *Cities and Regions in*

- the New Europe*(London: Belhaven Press), 39-67.
- Tapscott, D. and A. Caston(1993), *Paradigm Shift*(N.Y.: McGraw-Hill, Inc).
- Toybee, A. J.(1946), *A Study of Histor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UN(1996),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N.Y. : UN).
- Volberda, H. W.(1998), *Building the Flexible Firm*(Cambridge, Mass: MIT Press).
- Weick, K. E.(1979),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Reading, Mass. : Addison-Wesley, 2nd ed.).